

PEOPLE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박수관 (주)와이씨텍 회장

2000만원 여수에 고향사랑기부

여수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 한도 금액이 올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박수관 (주)와이씨텍 회장 (사진)이 2000만원을 기부하며 첫 금액 기부자가 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박수관 회장은 지난 2023년 500만원, 지난해 가족과 함께 총 15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왔으며, 이번 기부를 포함해 여수시에 총 4000만원을 기부했다.

여수시 남면이 고향인 박 회장은 현재 2026여수세계박람회 민간조직위원장을 맡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고향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매년 기부를 실천해 주신 박수관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신한 영향력이 확산돼 더욱 많은 분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지역 발전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남광주농협

푸른길공원 플로깅 봉사활동

남광주농협은 최근 광주 남구 진월동 푸른길공원 일대에서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 및 고향주부모임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 플로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주변 지하철 공사로 인해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로깅 (plogging)은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으로, 참가자들은 푸른길공원 곳곳을 걸으며 방치된 쓰레기와 오염물을 수거하는 등 지역사회 환경보호에 동참했다.

이영중 남광주농협 조합장은 “지역민과 조합원들이 자주 찾는 푸른길공원을 깨끗하게 가꾸는 데 일조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농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



화순, 암 예방사업 성과 ‘우수’

화순군은 최근 ‘2024년 국가 암 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2024년 광주·전남 암 관리 사업 평가대회 최우수기관상 수상에 이어 암 관리사업 2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보건소, 지역암센터 등에서 추진한 암 관리 사업의 기획부터 결과의 적절성과 효율적 관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에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했다.

특히 화순군은 암 예방 분야에서 올바른 정보 전달·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 인력 전문교육, 지역특화 암 관리 사업 운영을 통한 일차예방 강화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암 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 암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귀농귀촌 꿈, 먼저 경험하고 배워요”

곡성군, 예비 귀농귀촌인 맛보기 행사 개최
조상래 군수 “지역 특성 체험…자신감 얻어”

곡성군이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문화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곡성에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 ‘귀농산어촌 맛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예비 귀농인들이 곡성군의 농촌을 직접 체험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된 자리로, 농업과 지역 문화, 특산물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귀농과 귀촌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을 얻으며, 곡성군의 농촌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얻었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귀농 선배 농가의 농업 체험이다. 곡성군의 대표적인 귀농 선배 농가인 임면 제월리 블루베리 농가(임준섭 농가)와 옥과면 소토리 유림상추 농가(이수경 농가)를 방문, 참가자들은 실제 귀농생활을 체험했다. 이들은 농작물 수확은 물론, 다양한 농업 직업을 직접



곡성군은 지난 25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곡성에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 ‘귀농산어촌 맛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경험하며 귀농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두번째 프로그램은 곡성군의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농촌문화체험이다. 참가자들은 겸면 목화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박하며 특산물과 상담을 진행했고, 오산 오지봉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사과 재배교육과 두부, 비지 만들기 체험도 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만든 두부와 비

지로 점심을 함께 나누며, 농촌의 전통적인 식문화 체험했다.

곡성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예비 귀농인들은 농촌을 경험하고, 귀농 후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의 특성을 직접 느끼고, 귀농귀촌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참여한 참가자들이 지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발견하고, 실제 귀농귀촌을 위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ACC-서울교육청, 문화 투어·교육 협약 체결

청소년 교육역량 강화·아시아 콘텐츠 확산 기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욱)은 지난 2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와 ‘아시아 문화 콘텐츠 확산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ACC 김상욱 전당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ACC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ACC 전시 해설 및 시설 투어 지원’, ‘ACC 시설 사용 지원’,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

타 인적·물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반기부터 협력해 관련 콘텐츠를 홍보하고, 하반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 학생들이 ACC를 방문할 수 있도록 시설, 공간, 콘텐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ACC는 전시, 공연, 교육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ACC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해 청소년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와 ‘아시아 문화 콘텐츠 확산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ACC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으로써의 역할

을 강화하고 아시아 문화 콘텐츠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다경 기자 alsj094@gwangnam.co.kr

한전KDN, 노사합동 무사고 안전 결의

신사옥 공사 현장·사업장 내 산업재해 제로화 다짐

한전KDN은 최근 서울인천 지역본부 신사옥 공사 현장을 찾아 ‘2025 노사합동 무사고 안전 결의’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조득규 한전KDN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처·실장, 지역본부장, 건설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방기를 맞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옥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 확인과 함께 안전 경영 실천과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다짐했다.

행사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공사 현장과 사업장에서의 무재해 실현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경영진의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전KDN의 ‘2025 노사합동 무사고 안전 결의’ 행사는 SI모바일 비전 시연, 결의문 선서와 서명식을 시작으로 인사말, 나무 심기 순으로 진행됐다.

한전KDN은 직원 공모를 통해 금상을 수상한 ‘내가 걷는 안전고리 우리 가정 행복고리’라는 표

어 아래 행사 참여 임직원들은 안전수칙 준수와 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서울인천지역본부 신사옥 건설현장에 최초 적용한 ‘클라우드플랫폼 기반 AI 안전관리시스템’ SI모바일 비전 시연으로 안전관리 혁신을 알리고 생명 존중의 의미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기원하는 안전나무 심기 행사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지속적인 안전경영 강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공감 경영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KT 노사,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 ‘눈길’

랜선 한글교실 도입...직업 체험·문화 적응 지원

KT 전남전북광역본부와 KT 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내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중도입국 외국인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한국어 교육지원 프로그램 진행에 나선다.

26일 KT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022년부터 각 교육청과 손잡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와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랜선 한글교실’ 프로그램을 7개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도 3월부터 8월까지 한 학기 동안 광주 광산구 대반초등학교, 전남 영암 대불초등학교, 고려인마을 청소년문화센터 등 3개소 7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KT 노사는 25~26일 대반초교, 대불초교에서 온라인영어 캠프를 개최하고 각 초등학교에 태블릿 PC 총 40대를 기증했다. 학생들은 2명당 한국어 전문강사 1명이 매칭돼 온라인으로 개인 한국어 수준별 맞춤 교육과 한국어, 직업 체험, 한국



문화 적응교육 등을 한학기 동안 학습하게 된다.

고려인마을 청소년문화센터에는 대면·집중교육이 학습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전문강사가 센터를 직접 방문, 학습을 도울 예정으로 학습효과가 기대된다.

이남권 KT 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 위원장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빠른 한국 문화 적응을 위해 교육청과 손잡고 진행하는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의 이슈를 해결하는 상생 프로그램들을 지속 발굴, 미래 세대의 꿈이 완성되도록 KT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광주시동구새마을회,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평화의 숲 조성 나무심기 광주시동구새마을회 (회장 김대영)는 26일 새마을지도자동구협의회·부녀회, 청년새마을연대, 대학새마을동아리, 유관기관 등 약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과 평화의 숲 조성을 위한 5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실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서구, 스마트인재개발원과 업무협약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25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스마트인재개발원(대표 차준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관련 사업 추진,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